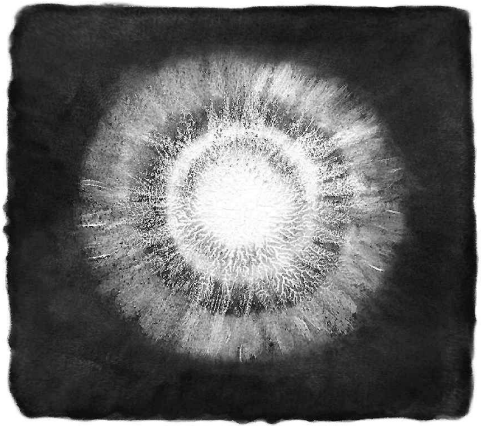
2017-17 4월 23일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곳곳에서 새로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문제들로 계속 짓눌려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바른 과정을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후보들이 불필요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자제하고 정당한 정책 대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를 넘어 시대의 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마28:20b …… 인도자

▲ 교 독 문 …… 80. 고후 4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장영숙 전도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막 2:1-12 …… I. 인도자 II. 박범희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이 세상 험하고 …… 찬양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눈같이 희겠네

말 씀 …… **본 적 없는 일** …… 김재흥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재흥 목사

공동체 소식 …… 김재흥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판단과 정죄의 길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 수용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가야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이해와 공감에 힘쓰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재흥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열 번째 날의 호랑이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잡혀와 우리에 갇혔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를 길들이려고 했지만 호랑이는 끈질기게 으르렁대며 우리의 쇠창살을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였고 숲의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련사는 호랑이를 굶김으로써 대응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척 사나운 호랑이로군. 하지만 당나귀처럼 굴게 될 거야. 내가 먹이를 갖고 있는데 주지 않을 테니까."

호랑이는 배가 고파졌고, 조련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련사는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면 고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호랑이지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 굶주림에 굴복한 호랑이는 조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양이처럼 야옹거렸습니다. 하지만 조련사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이를 달라고 하자 조련사는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수의 왕으로서의 체신 때문에 호랑이는 그 제안을 거부했고, 며칠을 먹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결국 호랑이는 당나귀처럼 히힝댔습니다. 그날이 호랑이가 우리에 갇힌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히힝대는 소리를 들은 조련사는 고기가 아닌 한 더미의 건초를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숲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대화」에 나오는 <열 번째 날의 호랑이> 중에서)

이 슬프고 참담한 이야기는 시리아 작가인 자카리아 타메르의 <열 번째 날의 호랑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작가인 자카리아 무함마드는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투옥, 검

문소, 모독, 고문, 폭격과 학살, 굶주림을 동원해 사람들을 굴복시키려는 조련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싸우고 저항하면서 자기 영혼을 불모지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나는 내 영혼이 증오와 어둠의 바다에서 헤엄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즉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욕망 충족'이라는 건초더미를 들고 우리에게 히힝거리라고 말합니다. 타락이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 번째 날의 호랑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가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물질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정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자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 가운데서 악의 영토는 줄어들고, 선의 영토는 늘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산보다도 더 무거운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배만 불리려는 비뚤어진 사랑 때문에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는 기쁨,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려 할 때 돌연 삶은 축제가 됩니다. 성도는 <열 번째 날의 호랑이>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일어서십시오.

- 김기석, 「끙끙 앓는 하나님」(꽃자리)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개나리

-서정순 (청파 교우)

늘어진 바람에 화장을 하고
아늘한 웃음으로 시선을 끄는

나를 보아야만 봄이 봄일 수 있듯이
나를 만나야만 봄을 만날 수 있다

치렁거리는 옷고름 풀어 젖히는
춘풍의 버들강아지 봄처녀 미소짓고
산자락 길모퉁에는 봄그늘도 노랗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공종철 구자경 권혁순 박혜경 김 린 김명순 이교영 김병대 김애순 김정린 김중현 성귀옥 김창숙 김은종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노성희 김만균 노신후 노진래 최형경 박시내 성지현 신승진 임성옥 안현숙 양경해 오진훈 노순옥 우순덕 이국노 김민화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용석 이유선 이재은 이주영 오재영 이치림 강상연 이한나 이현죽 이고임 장동훈 정은선 전수연 전영린 김행자 정원석 김현영 조관행 홍선희 조미선 최 숙 최석규 한규숙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성식 이유리 무명1

감사헌금
구재원 김성우 박유경 김은주 김주선 김호연 방경선 손숙경 오현우 유경주 이고임 이시경 이유일 김미희 이정은 이한림 김명희 조혜윤 황현성 이오복 무명12

녹색꿈헌금
노진래 최형경 오현우 이고임 임승동 백혜숙 무명3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쉼	낮 집 회 / 설교 : 신진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관리부 회의** : 관리부 회의가 오늘 1시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2. **특강** : 다음 주일 오후집회 시간에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일산 참포도나무교회 안준호 목사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3. **교회설립기념일 음악회** : 5월 첫 주일(7일) 오후집회 시간에 교회 설립일을 축하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결혼** : 정청훈 씨와 임유미 씨(임주빈 최현옥 장녀)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9일(토) 오전 11시 호텔아만티 2층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5. **신앙실천** : 지난 4월 20일(목)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살펴봅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벧전 1:17-23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이범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이범석	김인걸	이은정

4월	**1부 영접위원**	이진영	**헌금위원**	박숙미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혜령 최은미 김민화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성실		

오늘 식당 봉사	박홍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김영희 윤성종 최철수 한상균		
다음주식당봉사	안정숙 이혜령 박소현 이수정 이미영 김정민 장병준 박상규		
오늘설거지봉사	중고등부 유치부 교사	**다음주설거지봉사**	청파7속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이동천